

## 마음은 핏속에 있다(?)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부모님의 피 한 방울로부터 시작했다. 정자와 난자 또한 피의 변형체다. ‘피’는 육안으로 보이는 ‘빨간 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호르몬, 효소, 림프액 등 모든 것이 피에 속한다. 그 한 방울의 피에는 조상들의 유전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 유전정보가 뇌를 통하여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뇌 세포에 피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 세포는 마치 회로와 같은 것이며, 뇌 세포를 통하여 피가 흐를 때에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핏속에 마음이 들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없다.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사진: 영화 관상 출처:뉴스시스)

미국의 레슬리 다키투 박사는 “기억은 뇌에서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퍼져 있는, 내장으로 뻗은 신경 경로와 더불어 우리의 피부에까지 퍼져 있는 연결망에도 저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폴 피어설 박사는 150명 정도의 장기이식 수술 환자를 면담했는데, 살아 있는 조식의 세포는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마음 21 쪽에서 인용)고 말했다. 장이나 조직의 세포 또한 피의 변형이므로 핏속에 기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들의 생각을 비롯하여 행한 것들이 핏속에 녹음이 된다고 말하는 본 제단의 영생학과 같은 내용이다.

이처럼 핏속에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면 기억은 마음의 일부로 불과하므로 나머지 마음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피와 연관시켜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다른 것은 핏

### 속이 마음에 있다는 정황적 증거가 된다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성격이 꼼꼼하고, B형인 사람은 사교적이며 유순하고, O형인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하며, AB형의 사람은 변덕이 심한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피의 형태에 따라 각기 마음작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피의 작용이 곧 마음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핏주머니인 심장에 마음 심(心)자를 써서 심장이라고 일컬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ABO식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성격이 비슷한 것을 분류하여 놓은 것일 뿐이지만 대개 이러한 분류가 얼추 맞는 것을 보면 피가 마음작용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 나. 스트레스 학습

스트레스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

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Lazarus, 1993)이라고 심리학 용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따라 우리는 심리적 또는 생리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예컨대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손에서 땀이 나거나 심지어 호흡이 곤란해질 때도 있다.

### 다. 관상으로 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우같이 생긴 사람은 여우처럼 행동을 하고, 족제비같이 생긴 사람은 족제비 같은 행동을 한다. 악하게 생긴 사람은 악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착하다. 이 뿐만 아니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얼굴은 난폭한 형상이고, 격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갖게 된다. 이것은 마음에 의해 피가 변해서 그렇게 얼굴이 변한 것이다. 우리말에 “생긴 대로 노네.”하는

말도 피의 변화가 생김새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을 보여 주는 흔한 말을 알 수 있다.

### 라. 말속에 들어 있는 피의 원리

우리 말 속에 마음의 변화에 따른 피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많이 있다. 간이 콩 만해졌다. 대담(大膽)하다. 비위(脾胃)가 상했다. 얼굴이 사색(死色)이 되었다. 이러 표현들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해서 장이나 기관이 변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 마. 심신의학

심신의학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들에게조차 생소한 학문이다. 심신의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존 사노 박사는 많은 병들이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임상을 통하여 발견한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해로운 감정현상의 무의식적인 방어책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은 무의식에 의해서 일으키는 병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병이 낫거나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피와 마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도 마음과 피의 변화에 따른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내용으로 볼 때 적어도 피와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마음이 변하면 피가 변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생의 확실한 마음을 갖게 되면 영생의 피로 변하고, 반대로 죽을 마음을 먹으면 죽는 피로 변하므로 영생의 시작은 영생의 확실한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 된다는 ‘피의 원리’는 진리인 것이다.\*

한 나라도 도인이 없으면 텅 빈 나라이고, 빈약한 나라라도 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텅 비지 않은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의 효과가 지대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의 현재의 마음들은 제가 보기에 이미 견성의 단계에 거의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우리 식구들은 자신의 경지를 잘 모르고 너무 자신을 비하하여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깨달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천군의 우리들이 되어 천국의 세계를 하루 빨리 이룩합시다.\*

윤금옥 송사

## 깨달음은 괴로움과 결핍감이 사라진 지복의 상태

승리제단에 전도되어 며칠 예배를 보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에너지라 만나는 상대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 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승리제단에 계시는 구세주님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때문에 자신의 마음도 곧 평안해지는 것이겠지요.

누구의 도움없이 자력으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으려면 마음을 잘

다야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수행의 목표는 견성을 얻고자 함인데 (견성을 열반, 본성, 참나, 아트만, 불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견성하면 평안한 마음이 나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불교를 중창한 유명한 경허스님의 제자 만공스님과 그 맥을 잇는 승산스님도 견성에 이르면 온우주가 내가 되어 괴로움과 결핍감이 사라지고 지복의 상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지복의 상태는 마음이 커져서 사고(思考)가 나와 나란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 누구와도 더불어 잘 사는 방향, 즉 우주적인 사고로 변화될 때 얻어지는 것이지 자신에 갇혀 있는 범부의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결핍감이 스며들면 반대생각이 힘들어지고 결핍감 속에서 행한 행동은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핍감 속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면 만족한 소감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결핍감을 메꾸기 위해 생각없이 돈을 지출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공스님 법어집을 보면 아무리 발랄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http://www.victor.or.kr)

## 금주의 말씀 요절

###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6>

### “승리제단은 완성의 진리를 논한다”

승리제단(勝利祭壇)이란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의 약칭인데 인류에게 실제로 영생을 주는 이기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제단이란 뜻이다.

승리제단은 기독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다. 승리제단은 어떤 특정 종파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기성종교의 한 부류가 아니라 유, 불, 선 및 모든

종교와 학문을 통합하는 완벽한 진리의 종교이다.

완성의 하나님이 나오신고로, 완성의 종교가 나오고로 이제 세계는 점차 모든 분야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어둠과 분쟁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모든 것이 곧 하나로 통치되게 될 것이다.\*

## 100세시대의 종착역은 불사영생이다

요즘 칠순 잔치, 팔순 잔치나 결혼 피로연, 돌잔치에 초대되어 가보면 음식메뉴가 한정식 아니면 뷔페식이다. 모두들 밥이나 과일, 고기 종류는 잘 먹는데 술을 먹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옆 사람에게 술을 권하면 술을 끊었다고 사양하며 하는 말이 “아! 요즘 백세시대인데 백세까지 오래 살려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말한다. 다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모양이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한 평생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

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 이긴자 구세주는 영생을 약속했다

이긴자 구세주는 1980년 10월 15일부로 정통 하나님의 도를 도통하시고 그 증표로 감로이슬성신을 들고 이 세상 한국 부천 소사평에 오셨다.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한 지 35년여 지나니 백세시대란 말이 방송과 신문에서 흘러나왔듯이 조금 있으면 200세 시대, 그 다음은 300세 시대 이렇게 늘어나 앞으로 1000세를 넘어 10000세를 넘어 영생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이긴자 구세주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술의 발달과 좋은 약의 혜택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실재는 천시(天時)에 맞아야 한다. 격암유록 생초지락에 “천증세월(天增歲月) 인증수(人增壽) 연년익수(延年益壽) 초락도(初樂道)”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하늘이 세월을 더해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니 해마다 수명이 길어지는 처음 나온 즐거운 도라는 뜻이다. 지금 백세시대 운운하는 것은 하늘의 때가 맞아서 그렇다는 예언이다.

### 무병장수는 인류의 꿈

필자는 20대초인 1960년대에 동아일보 <황철수설> 칼럼에서 ‘무드셀라 유전자 찾이라’ 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라는 인물은 노아의 조부(祖父)로서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다. 칼럼의 내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아마 유전공학의 발달로 우리 안에 있는 장수유전자를 찾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같다. 1960년대에는 이긴자 구세주가 출현하기 전인데 그때도 무드셀라처럼 장수를 소망했으니 무병장수란 인류의 영원한 로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속담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종착역인 천 리에 도착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한 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100세를 한계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물론 개중에는 이삼십 세 되어서 요절하거나 또는 팔구십 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백세를 목표로 정하고 건강에 해로운 술담배를 끊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긴자 구세주께서 죽지 않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합일되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영생의 조류는 더욱 세차게 흐를 것이다. 중생들이여! 당신의 생명의 피가 마귀 신인 죄로 오염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아는가? 어서 빨리 승리제단에 와서 구세주 미륵부처님에게서 내리는 감로수 이슬성신으로 더러워진 썩은 피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신선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도를 닦아보세.\*

오양현/승천제단 책임자로

## 본부제단 노방전도 시작

5지역 4월 1일 탑골공원에서 첫 전도



따뜻한 봄을 맞아 탑골공원으로 전도를 나갔다. 탑골공원 정문에 대화탁자와 패널 그리고 책 전시대를 설치하고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 탓에 햇볕이 드는

양지는 따뜻하고 좋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쌀쌀한 기온이었다. 덕분에 따뜻한 차대접이 효과가 있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고 패널과 대화탁자 그리고 책 전시대에서는 시종 일관 진리 토론이 계속되었고 다들 잘 받아들였다.

승리신문 회원은 14명 확보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강연회에 초대하면 오겠다고 약속한 분들도 많았다.\*